

# 부산체육

February 2021 VOL.12

톡톡



## 구·군체육회 Talk!

첫 포문을 연 체육회,  
탄탄한 내실로  
빛나다!

- 중구체육회



## 교육 Talk!

온택트(Ontact) 시대의  
체육활동



## 뉴스이 Talk!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항북항통합개발  
추진단 방문



## 뉴스02 Talk!

부산광역시·구·군  
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 구군체육회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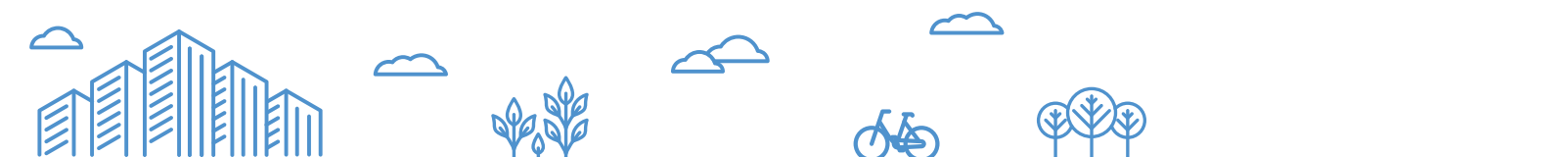
# 첫 포문을 연 체육회, 탄탄한 내실로 빛나다!

중구체육회

1994년 문을 연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는 16개 구·군체육회 중 제일 먼저 설립됐다. 지난 1월 30일(토) 첫 민선 부산 중구체육회장에 당선돼 취임식을 치른 김만택 신임회장을 주축으로 8명의 부회장과 50여 명의 이사 등이 중구체육회를 내실 있게 이끌어가는 중이다. 탄탄한 이사진이 돋보이는 중구체육회, 코로나19 시대 이전에는 어떤 활동을 펼쳤으며 현재는 어떤 활동을 이어오는 있는지 궁금했다.

### 복합체육시설 건립은 중구체육회의 간절한 바람

중구체육회에 속한 단체는 12개 종목 49개 클럽, 회원 수는 대략 1,187명이다. 체육 인구가 많아야 활기를 띠는데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규모가 작은데다 인구 수도 적다. 중구가 상업지구다 보니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만큼 체육인의 수도 적은 것이다. 게다가 중구 관내에 복합체육시설이 없다 보니 생활체육대회 및 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한다. 그런 까닭에 중구체육회의 오랜 숙원사업은 복합체육시설 건립이었다. 복합체육시설이 건립되면 관내 복합체육 시설을 이용해 각 종목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동호인 친선경기 등을 개최해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회원종목 단체를 더 활성화시키고 늘어나도록 운영하면서 구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하고 살기 좋은 중구로 손꼽히길 중구체육회 관계자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내부 구성원의 단합만큼은 탄탄하다고 말하는 중구체육회는 지난 1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신속하게 김만택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 구군체육회 Talk!



### 지도활동 외에 지역민의 체력증진 위한 노력

“중구체육회에는 육상, 배구, 배드민턴, 축구 등 4명의 선수 출신 지도자와 1명의 체육전공 지도자가 근무 중이에요. 지도자의 주 업무가 수업 지도인데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관내 학교나 복지관, 주민센터, 경로당 등의 공공기관으로 1일 3개소 이상 지도활동을 나갔어요. 주로 수업 요청을 해오는 곳에 가는데 학교의 경우 방과 후 수업을 갔고요. 학교마다 모든 종목별 전문 지도자가 상주하는 게 아니라서 해당 종목의 지도자가 없는 경우 저희에게 요청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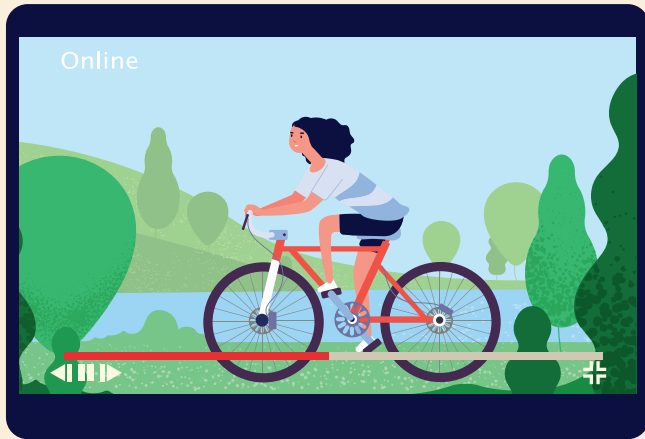
중구체육회에 오랜 시간 몸담은 임세은 지도자의 설명이 이어졌다.

“또 관내 주민을 지도할 때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반 지도자, 어르신 지도자로 구분해 뒀어요. 참여 대상자에 맞춰 각 지도자가 수업을 하는 거죠. 지도 활동뿐만 아니라 행정업무, 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일을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어르신체육대회, 중구체육회장배대회, 중구청장배대회, 영도다리 만남의 걷기대회 등 대회 개최와 운영뿐만 아니라 생활체육교실운영 등 구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 1인 1종목 참여하게끔 독려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2020년 1년 내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각 구·군체육회의 일상 역시 변화가 컸다. 상반기에는 거의 활동이 묶이다시피 했던 게 사실이다. 대한체육회의 지침으로 중구체육회는 2020년 5월부터 지도자와 함께하는 맨몸 근력운동 시리즈와 홈트레이닝 전신운동, 지도자와 함께하는 밸리댄스, 지도자와 함께하는 폼롤러(근육을 풀어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고무 소재의 운동용품) 근막마사지, 지도자와 함께하는 라인댄스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해 부산중구체육회 스포츠톡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현장을 나가긴 했지만 코로나19 상황 추이를 보가면서 멈춤과 개시를 반복하는 간헐적인 활동이 이어졌다. 아직 몇몇 체육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구·군체육회에 공식 홈페이지가 있지 않은 상황, 중구체육회는 그간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 홍보 등은 관내 신문과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해왔다. 현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중구체육회 홈페이지를 제작 중이다. 2021년에는 더 다양한 콘텐츠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한발 다가 다양한 운동을 소개하고 좋은 운동방법을 제공하겠다는 중구체육회 지도자들의 당찬 포부가 빛났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이전처럼 체육활동에 활기가 가득하길 바라는 지도자들의 바람이 조만간 실현되길 고대해본다.



## 교육 Talk!



## 온택트(Ontact) 시대의 체육활동



### 온택트(Ontact)란?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외부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확산된 것으로 코로나19 이전의 언택트(Untact)는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 부문 정도였지만, 코로나19 이후에는 사회 전반에서 ‘언택트(Untact)’를 넘어 ‘온택트(Ontact)’가 새로운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 온택트(Ontact)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에서 머무르는 생활에 지친 이들이 온라인으로 외부와 연결, 각종 활동을 하는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 교육 Talk!



### 온택트(Ontact) 시대의 체육활동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활동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다. 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 동계체육대회 등 전국종합체육대회가 연기 및 미개최되고 행사들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운 상황에도 현재 체육계는 비대면 방식을 이용해 꾸준히 체육 보급을 위해 힘쓰고 있다. 단편적인 비대면으로 활동하는 언택트(Untact) 방식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이지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방식을 도입해 체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 방식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 Type 1. 실시간 송출을 통한 양방향 소통

스포츠와 관련된 행사에는 전국체육대회와 같은 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세미나, 시상식 등 체육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다. 이전까지는 사전녹화를 통해 게시하는 등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그러한 행사들을 영상 플랫폼(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송출해 녹화된 화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직접 의견을 공유하며 참여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방식을 활용해 시민 및 체육인들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돕는 중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에서 2020 부산체육진흥세미나를 실시간 송출하는 온택트(Ontact) 방식을 이용해 부산시민 및 체육인들과 함께 부산체육의 앞날을 모색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행사와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점점 행사 참여의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 Type 2. 버추얼 레이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비롯한 집 주변의 피트니스센터 역시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면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활동이 주목을 받는 추세이다. 그중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달리기, 자전거와 같은 종목과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이 더해져서 새로운 체육문화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스포츠 브랜드에서 개발한 달리기 애플리케이션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를 이용해 달린 거리와 모양, 속도 등을 알 수 있어 체육인들이 흥미로운 방법으로 운동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달린 경우 거리와 기록 코스 등을 비교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운동을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같은 거리를 다른 지역에서 달리는 버추얼 마라톤 대회도 개최되고 있다. 마라톤 이외에도 자전거, 등산 등 다양한 종목의 추가로 버추얼 스포츠가 새로운 방식의 스포츠 활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 비대면 속에서도 이어지는 유대감

코로나19가 지속됨으로 인해 직접 대면으로는 한동안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비대면 방식을 이용한 스포츠 문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직접 만날 순 없어도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택트 방식을 이용해 함께 비교, 경쟁하거나 행사를 함께하면서 사람들과 유대감을 갖게 되고 버추얼 스포츠 등과 같은 새로운 스포츠를 즐기는 방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해본다.



뉴스 Talk!



SPORTS  
NEWS

01

##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방문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단은 2021년 1월 27일(수)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을 방문해 추진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정성기 단장으로부터 북항재개발 1, 2단계 사업의 개요와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영상 관람 등을 통해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현재 추진단은 북항 재개발사업 1단계로 부산광역시의 해양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는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다이버 풀,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건립 중에 있다. 부산항 기념관 부지와 연안여객터미널 터와 바다를 사이에 둔 공간에 들어설 예정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이 작년 부산광역시 초대 민선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한 사업이다.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의 교두보로 해양레포츠의 특성상 계절적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기반시설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북항’이라는 도심속 우수한 지리적 접근성을 통한 해양레포츠 인구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해양수산부 및 부산광역시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가칭)부산해양레포츠콤플렉스’ 건립이 추진되었다.

부산해양레포츠콤플렉스는 시민들이 실내에서 사계절 이용 가능한 전국 최대·최고 규모의 실내 인공 서핑장과 인근 수로를 활용한 각종 해양레포츠(요트, 조정, 카누, 패들보드, 윈드서핑 등)를 체험할 기회와 볼거리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부산의 해양레포츠 메카로 급부상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부산이 명실상부 해양수도에 걸맞은 다양한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해양·관광·레포츠 도시!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행복도시 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뉴스 Talk!



SPORTS  
NEWS

02

부산광역시·구·군 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장 간담회 개최



지난 2월 9일(화)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과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 외 16개 구·군 체육회장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체육회 법인 설립 추진과 고용노동부 지방체육회 근로감독 실시, 대한노인체육회 관련 대응사항, 대한체육회 중점 추진사항 그리고 지방체육회의 건의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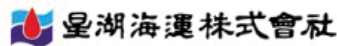
이 간담회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은 “학교체육의 정상화가 중요한 문제이며 학생 200명당 1명씩 정규직 스포츠 지도자를 배치하려 한다”고 전했다. 스포츠 지도자 강사를 늘려서 학교체육을 지원한다면 결국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현재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 처가 나누어진 실정인데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체육에 관한 통합관리가 필요, 이를 위해 국가체육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1년에 2번 정도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군·구 회장을 대상으로 1년에 1번 이상 1박 2일 연수를 실시할 것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는 등 교류와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추진사항 등을 전달했다.

이후 건의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6개 구·군 체육회장들의 건의가 이어졌다. 동래구체육회 장준용 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포츠클럽, 스포츠센터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얘기했다. 연제구체육회 김진근 회장은 구체육회의 집행 가능 예산과 선거에

관련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대한체육회 차원의 지원 가능 여부와 체육회의 실정에 맞는 표준조례(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서구체육회 김재업 회장은 지역의 대표선수들의 급여 지원을 언급했고 사상구체육회 강진태 회장은 체육회 임원(이사)과 사무국장의 인원 총원의 어려움으로 인한 연임 제한 폐지를 얘기했다.

다양한 질의를 통해 조금이나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부산체육이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대한체육회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스타자동차